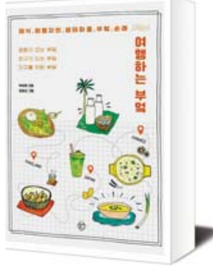
새 책

▶나나(이희영 지음)=책은 '영혼이 몸을 빠져나온다면'이라는 흥미로운 설정에서 출발한다. 한수리와 은류 두 주인공이 영혼으로 빠져나온 뒤 스스로를 관찰하며 진짜 자신의 모습을 깨달아가는 과정이 깊은 공감을 불러일으킨다. 작가는 재기 넘치는 문장으로 오늘을 사는 현대인의 영혼을 속속들이 들여다본다. 창비. 1만3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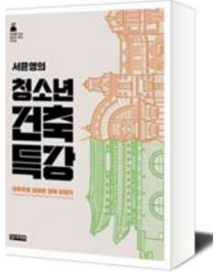
▶벨롱장에서 만난 사람(권비영 지음)=작가의 소설에서는 모든 게 그리움의 대상이 된다. 책은 그리움을 엮어 길어 올린 작가의 열두 편의 이야기가 담겼다. '작가의 말'에서 저자는 "세 번째 창작집을 묶는다. 부끄럽고 허기지나, 그래서 더 소중하다"고 전한다. 가쎄. 1만4800원.

▶나는 제주도로 퇴근한다(신재현 지음)=서울 교직 생활을 뒤로 하고 제주로 이주해 마흔이 넘은 나이에 제주 초등 교사가 된 저자. 제주에 내려와 아내와의 대화 시간이 늘어나고 아이들과 캠핑을 즐기는 등 지금 매우 행복하다는 그의 소소해서 특별한 제주의 일상과 제주도 이주민의 제주 활용법이 담겼다. 처음북스. 1만5000원.

▶데이비드 보위의 삶을 바꾼 100권의 책(존 오코넬 지음, 장호연 옮김)=영국의 록스타 데이비드 보위는 사망하기 3년 전 자신의 삶을 바꿔놓은 책 100권의 목록을 공개했다. 그 안에는 소설과 논픽션, 문학적인 작품과 인습 타파적인 작품, 불멸의 고전과 난잡한 외설이 고루 섞여 있다. 저자는 그 책들이 데이비드 보위의 개인적·예술적 삶에 어떤 영향을 미쳤을지를 추리하고 분석한다. 뮤진트리. 2만3000원.



▶여행하는 부엌(박세영 지음)=저자가 만난 생태마을 사람들은 기후위기, 식량 자급, 개인적인 신념 등 다양한 이유로 채식을 실천하고 있다. 이들을 통해 저자는 고정 관념을 모두 벗어나 자신에게 맞는 식재료와 조리법을 '스스로 찾아보는 경험' 그 자체가 소중함을 깨닫는다. 저자의 여행을 따라가면 낯선 재료와 독특한 조리법, 색다른 부엌들을 만날 수 있다. 열매하나. 1만5000원.



▶서윤영의 청소년 건축 특강(서윤영 지음)=저자는 일제가 한국인의 민족성을 말살하려고 훼손한 경복궁, 창경궁, 덕수궁 등 조선의 궁궐들과 식민지 지배를 위해 지은 조선총독부, 조선 신궁, 경성제국대학 등 열 가지 건축물에 관해 이야기한다. 해방 이후 일제가 지은 건축물을 청산하는 과정을 청소년 눈높이에서 쉽게 알려 준다. 철수와영희. 1만3000원. 오은지기자 ejoh@ihalla.com

뿌리 깊은 갈등 배경에 부동산 헤게모니

앨리스 푼의 '홍콩의 토지와 지배 계급'

사회가 만드는 토지 가치 어디에 귀속되어야 할까

"도로가 건설되고, 거리가 조성되고, 서비스가 개선되고, 전등이 밤을 낮으로 바꾸며, 100마일 떨어진 산속 저수지에서 물을 끌어온다. 이때 지주는 가만히 앉아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이 모든 발전은 다른 사람들과 납세자들의 노동과 비용 부담으로 이루어진다. 토지 독점자는 여기에 무엇 하나 기여한 바가 없는데도 모든 발전은 그의 토지 가치를 상승시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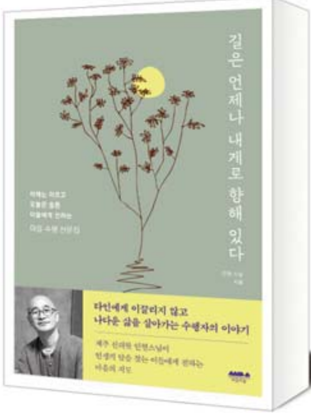
토지 독점의 폐해를 지적했던 1909년 윈스턴 처칠의 하원 연설 일부다. 2005년 캐나다에서 '홍콩의 토지와 지배 계급'을 출판한 홍콩 출신 앨리스 푼은 약 100년 전의 연설이 21세기에도 여전히 유효하다는 점에 놀랐다. 홍콩 개발 업체가 농지 하나를 소유하고 있다가 신도시 조성 등 기회가 무르익을 때 수익이 나는 주거용으로 개발해 이윤을 획득하는 과정과 너무도 유사했기 때문이다.

오늘날 홍콩 민중운동을 촉발한 뿌리 깊은 갈등의 이면에 부동산을 둘러싼 헤게모니 투쟁이 있다고 보고 수십 년간 홍콩 부동산 개발업자들이 부를 쌓은 전략을 살핀 '홍콩의 토지와 지배 계급'이 우리말로 번역되어 나왔다. 미국의 토지개혁가이자 경제학자인 헨리 조지(1839~1897)가 지대와 불평등한 부의 분배 사이의 관계를 다룬 저서 '진보와 빈곤'에서 영향을 받은 책으로 몇몇 경제 권력가의 손에 경제력과 부가 지나치게 집중되어 있고 이는 기본적으로 홍콩의 토지제도와 주요 부문의 경쟁 부족 탓이라는 데서 출발하고 있다.

저자가 토지 독점이 야기한 불균등한 부의 분배를 바로잡는 대안으로 제시한 건 헨리 조지가 그 개념을 세웠던 토지가치세다. 어떤 부지든 토지 가치는 토지 소유자 개인이 아니라 사회에 의해 대부분 만들어지는 만큼 그 토지의 임대가치는 그 가치를 창출한 사회에 귀속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사회가 토지의 시장 가치에 부과하는 세금은 토지를 최고 최선으로 이용하도록 자극하고 생산적인 고용을 촉진하게 된다고 했다. 다만 그는 정치적·현실적 상황에서 토지가치세 실현에는 큰 어려움이 따를 것이라며 "어떤 개혁이든 성공적으로 추진하려면 공직자와 사회 구성원의 정직하고 양심적이며 사회적으로 책임 있는 자세가 반드시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성찬 옮김. 생각비행. 1만8000원. 진선희기자 sunny@ihalla.com

반드시 무엇을 하지 않아도 행복하도록

제주 선래왓 인현 스님 산문집



허공에 춤추는 언어가 아니라 땅에 발을 디딘 채 몸소 얻어낸 말들은 절로 우리의 마음에 닿는다. 제주시 조천읍 선흘리에서 선래왓이라는 도량을 일구고 있는 인현 스님(법명 오성)의 산문집 '길은 언제나 내게로 향해 있다'에 그런 문장들이 있다.

어린 시절 구좌읍 김녕 백련사에서 출가한 인현 스님은 합천 해인사의 강원과 남원 실상사 화엄학림에서 경전을 공부했다. 그 후에도 하동 쌍계사, 금정 범어사, 미얀마 마하시 명상 센터 등에서 수행을 이어갔다.

산문집에는 "삶이 곧 수행"이라는 옛 어른들의 말씀을 따르려 다짐해 온 스님의 이야기들이 주변 풍경을 담은 사진들과 함께 실렸다. 인연이 닿은 이들에게 작은 위안이 되고 쉼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일기장에서 꺼내놓은 사연들이다.

경어체로 시처럼 쓰인 글들은 한 편 한 편 잠언으로 다가온다. 본성을 잃지 않는 자연을 오래도록 응시해온 스님은 뜻을 강요하지 않는 말들로 맑은 울림을 전한다. "언제나 첫걸음을 떼는 새날입니다", "내가 떠나보내고 돌아올 뿐입니다", "모든 삶이 그러합니다", "이제 자신이 봄임을 믿어야 하는 시간입니다", "내 시간에 저들의 시간을 맞추지 마세요", "지금, 당신이 온전히 주인공입니다", "꽃은 그 마음 저버리지 않고 저렇게 다시 옵니다" 등 50편이 넘는 글의 제목은 곧 깨우침을 담고 있다. 자신에 대한 겸허한 성찰의 결과다.

그 여정에 외로움, 단절, 더딘 시간 등에서 더 많은 것을 배우고 얻었던 나날들이 있다. "반드시 무엇을 하지 않아도 행복할 수 있습니다"에서 스님은 "좀 나태하고 게으르게 살면 안 되겠습니까"라고 물으며 다음을 덧붙인다. "차츰 미래에 대한 불안에서 벗어나 주변을 게으른 눈으로 찬찬히 들여다보면 내가 무엇을 하지 않아도 나를 행복하게 하는 것들이 참 많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진정 내가 감사해야 하고, 몸담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 또렷하게 다가올 것입니다." 마음의숲. 1만3800원. 진선희기자

이 책 강준 장편소설 '제주랩소디'

삼대에 걸친 인연 속 제주 개발 이면

제주 부동산 붐을 일으킨 중국자본의 실체과 제주도 개발의 이면을 그린 장편 '제주랩소디'를 펴낸 강준 소설가.

"누게 하나 거들떠보지도 않던 땅을 중국 사름들 드나들멍 열배 스무 배로 올령 사켠허니 동네 사름덜 눈깔이 뒤집혀 분 거우다. 여길 떠나믄 어디강 무신 거 허영 먹엉 삽니까?" 하나도라는 섬에 사는 여인은 푸념하듯 이런 말을 뱉는다. 중국 자본은 제주도 관광개발전을 위한 획기적인 프로젝트라는 명분으로 그 섬 전체를 공원화하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이 과정에서 하나도가 강정해군기지를 견제할 수 있는 해상 요지로 그려진다.

제주 강준(본명 강용준) 작가의 장편소설 '제주랩소디'는 상상력으로 창조된 픽션이지만 개발 이슈가 꺼지지 않는 오늘날 제주의 현실이 배어있다. 2019년 3월 1일부터 2020년 2월 6일까지 강 작가가 한라일보 인터넷판에 주 1회씩 총 50회에 걸쳐 '갈바람 광시곡'이란 이름으로 고재만 화백의 삽화를 더해 연재했던 소설로 표제를 바꿔 달고 단행본으로 묶여 나왔다.

1년간 한라일보 인터넷 연재 두목회·하나도 프로젝트 등 중국 자본 실체 좇는 인물 그려

장편의 구상은 제주시 산지천에 있던 중국 난민선 해상호에서 시작됐다. 그 후손을 포함 세 집안의 삼대에 걸친 인연과 우정 속에 부동산 붐을 일으킨 중국 자본의 실체와 제주도 개발의 이면을 좇는 작품이다.

주요 등장인물은 제주 주재 기자인 권용찬, 화교 3세로 자수성가형 인물인 왕금산, 건설회사 대표인 기회주의자 장종필이다. 이들의 과거와 현재를 따라가는 동안 전형진 전 제주지사의 사조직으로 견고한 네트워크가 구축된 두목회, 하나도를 매입해 중국 섬으로 만들려는 랴오닝그룹의 음모 등이 얽힌다.

소설 속 개발론자로 나오는 전형진 전 지사는 용찬에게 충고하듯 말한다. "하나도 개발로 건설경기가 살아날 거고, 젊은이들 일자리가 생겨나고 관광객이 몰려들면 제주도 경제가 활성화되지. 거기다 연간 지방세로 벌어들이는 수입이 얼마나 되는지 생각해봤어?" 소설은 제주도의 하나도 프로젝트 취소 발표, 비리 정치인의 구속이라는 결말에 이르지만 제주 섬을 둘러싼 욕망이 거기에서 멈출지에 대해선 여지를 남긴다.

강 작가는 "제주는 이제 이주민과 외국인이 많은 명실상부한 국제도시다. 제주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이 작품을 바친다"고 했다. 황금알. 1만5000원. 진선희기자